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흥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훈



회선 박순철

‘제 20회 광양매화축제’ 내달 개최

청춘들 위한 청춘&희망 콘서트와 흥쌍리 건강밥상 토크콘서트 개최

내달 17일부터 25일까지...상춘객 위한 쾌적한 축제장 조성에 주력

올해 20회째를 맞는 2018 광양매화축제가 오는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광양시는 지난 21일 광양매화축제 위원회를 열고 '2018 광양매화축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봄꽃 축제의 서막을 여는 광양매화축제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섬진강변 백운산 자락의 약 33만㎡의 매화 군락지가 섬진강 물길을 따라 펼쳐지는 장관을 연출하며,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남도의 대표 축제다.

이번 축제에서는 매화가 수놓아진 한복을 입고 펼치는 패션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세프와 함께하는 패션 쿠킹쇼를 비롯해 매화를 체험하는 다채로운 볼거리가 둔치주차장에서부터 행사장까지 이동하는 곳곳에서 거리 퍼포먼스와 함께 펼쳐진다. 또 시립예술단의 축하공연과 지역 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도 펼쳐지며, 상춘객들을 맞이한다.



특히, 올해는 축제 20회를 맞아 스무 살이 된 청춘들을 위한 '청춘도 봄도 활짝 피는 청춘&희망 콘서트'와 매일명인 흥쌍리의 건강밥상 토크콘서트'가 열려 광양매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축제기간 중 불법노점상 근절과 화장실 추가 설치와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쾌적하고 질서 있는 축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상춘객 맞이에 나서고 있다.

김문수 관광과장은 "광양매화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그동안 축제를 추진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매화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화마을의 대표 관광지인 청매실농원은 축제기간은 물론 사시 사절 무료로 개방되고 있어, 청매실 농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구름위에 있는 듯한 매화의 향연 속에서 내려다보이는 섬진강과 함께 진정한 자연 속 힐링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김충권 기자

광양시, 다목적 소형 농기계 공급 확대

13억 4천만 원 투자 여성 농업인·고령 농가에 485대 공급

광양시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다목적 소형 농기계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은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수확 작업과 화상질 추가 설치와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쾌적하고 질서 있는 축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상춘객 맞이에 나서고 있다.

김문수 관광과장은 "광양매화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그동안 축제를 추진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매화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는 농가에서 신청한 전량에 해당한다.

그동안 시에서는 도 지원 사업 뿐 아니라 매년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추가로 소형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으며,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목적 소형농기계 2,913대를 공급했다.

올해 소형 농기계 지원 기준은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의 일반 농기계 중 70만 원 이상 농기계로, 구입비의 50%를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광양=김충권 기자



순천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60억 돌파

개장 1년 9개월만...오는 4월 조례호수공원에 2호점 문 열어

순천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한지 1년 9개월 만에 매출액 60억을 달성해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직매장을 찾은 소비자는 23만 명으로 하루 평균 360명이 다녀갔고 소비자 회원 가입자도 꾸준히 늘어 1만명을 돌파했다.

농산물 출하 농가도 개장 초기 340농가에서 540농가로 크게 늘었으며 판매 품목 또한 320개에서 586개로 매우 다양해졌다.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품목은 신선농산물로 총 판매액의 42%로 차지했고, 다음은 축·수산물, 가공품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설 연휴는 늘어난 대형마트와 식자재 유통업체의 치열한 경쟁에도 전년보다 매출이 33% 상승해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처럼 직매장이 인기를 끄는 것은 당일 수확한 농산물을 농민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내놓기에 유통단계가 줄어 가격이 저렴하고 신선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시가 출하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공표하고 민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는데 한 몫 했다는 평이다.

또한, 지난해 개장한 로컬푸드 레스토랑 '여미락'은 지역 농산물로 만든 제육쌈밥, 떡갈비, 비빔밥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여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오는 4월 조례호수공원에 직매장 2호점을 개장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시민 안전까지 기본권 확보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농업정책과 박승조 과장은 "순천형 로컬푸드는 1,089명의 시민주주가 참여한 전국 최초의 민·관협력 사업으로 도시와 농촌, 농업인과 소비자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자치분권시대 우리마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요”

순천시 서면, 생활쓰레기 수거 지원시스템 첫발 내딛어

순천시 서면에서는 청소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8개 오지마을의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해 주민들이 발벗고 나선 '생활쓰레기수거 지원차량'이 최근 첫 운행에 시작했다.

올 해 순천의 관문인 서면의 특화사업으로 도입된 '쓰레기수거 지원시스템'은 오지마을까지 시 청

소차량이 운행되지 않아 큰 도로변까지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 불편한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방치하던 것을 고심하던 중 서면사무소 직원들과 뜻 있는 지역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해결책이다.

좁은 마을안길을 운행하며 쓰레

기를 수거할 수 있는 1톤 이하 소형차량을 서면사무소에서 지원해주고 주민들은 스스로 구성된 마을협의체에서 쓰레기를 모아서 거점지로 옮기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마을회관까지도 생활쓰레기 배출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세대는 집 앞 문전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르신 안부 살피기도 병행하여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노인복지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천시 서면장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마을 발전방안을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충권 기자

화순 명품딸기 소비자로부터 '호평'



화순 명품딸기가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아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23일 화순군에 따르면 명품딸기는 매일 3톤이 생산돼 광주·부산 도매시장 60%, 광주·목포 이마트 30%, 로컬푸드·직거래 10%의 비율로 공급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다.

이처럼 화순 명품 딸기 호평을 받은 데는 전국 딸기 재배단지 중 가장 앞선 다양한 선진농업 기술을 실천하고 GAP인증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순 관내에는 현재 30농가에서 14.2ha의 명품딸기를 재배하고 있으며, 전체 재배 농가 중 90% 이상인 22농가 13ha 면적에서 고설재배(수경재배)를 하고 있다.

화순딸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성초)은 회원 모두가 고설재배(수경재

배)를 하고 있으며, 해충방제를 위해 전직을 사용, 광합성 효율을 높여 딸기 당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전문 컨설팅 업체와 계약해 주기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새벽에 수확한 딸기는 저온선별장에서 선별, 공동출하해 신선도가 높다.

특히 고설재배 농가 중 63%인 14농가/7ha는 스마트팜을 도입해 정밀환경제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물론 경영비 절감을 실천하고 있다.

고설재배는 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허리 높이의 베드 위에서 재배하는 방식으로 땅에서 딸기를 키우는 토경재배에 비해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수량을 증대시키는 기술이다.

군은 고품질 '명품 딸기' 생산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도비 등 1억원을 들여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특산물 우량묘를 생산해보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군비 30여원을 확보해 고설재배 및 스마트팜 확대를 통한 '명품 딸기 생산단지 육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구축(국비 5천만원)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 활용 극대화를 통해 소득 증대에 나서기로 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

장성군

장성군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